



크리스마스엔 양말인형 만들어 산타할아버지께 선물해 보세요



양말인형

지난 겨울 신디가 늘어난 낡은 양말이 귀여운 인형으로 재탄생했다. '삭스 돌(socks doll)', 양말인형 이야기다. 양말인형은 미국의 탄광촌에 살던 할머니가 크리스마스가 되어 손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지만 가난한 형편에 선물을 살 돈이 없자 할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면서 신었던 두껍고 큰 양말로 인형을 만들어 손녀에게 선물하면서 유행했다고 전해진다.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애플킨추리 공방을 운영하며 양말인형 등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송우연(42)씨는 막내딸에게 줄 양말인형을 만들면서 그 매력에 속 빠지고 말았다. 여러 공예 중에서도 양말인형은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는 데도 안정맞춤인 작업이었다.

양말인형은 생김새 만큼이나 만드는 과정도 쉽고 간단하다. 단돈 1000원이면 얼마든지 예쁜 그림의 양말을 구할 수 있고 아이들이 신다 떨어진 양말 한짝씩을 이용해 연습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도안도 간단하며 기본적인 바느질을 할 줄 알면 된다. 초보자라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눈사람 양말인형에 도전해보자. 재료도 간단하다. 양말과 실, 바늘, 가위, 인형의 눈으로 솔 단추 2개 정도면 된다. 양말은 수면양말 한 짝과 일반 양말 한 짝을 준비하면 된다. 일반 양말은 눈사람의 모자와 옷에 사용되므로 이왕이면 겨울옷의 느낌의 무늬양말이면 좋겠다.

먼저 수면양말을 뒤꿈치에서 4cm 정도 위로 잘라준다. 자른 부분의 살짝 아래쪽에 흰색 실로 홈질을 해준다. 실은 일반적으로 퀘팅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짱짱하게 두 줄로 바느질을 하도록 한다. 홈질을 한 다음 안쪽에 솜을 채워넣는다. 솜은 방울솜으로, 양은 충분하게 다. 인형을 만들 때는 방울솜이 주로 이용된다. 이불에 쓰이는 구름솜은 속에서 뭉쳐버리기 때문에 모양을 잡기에 적합하지 않다.

"양말인형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솜 넣는 것"이라는 송씨는 어느 정도 동글동글하다 싶을 만큼



양말인형의 매력을 소개해주고 있는 송우연씨.

광주 농성동 애플킨추리 공방 송우연씨 막내딸 선물 만들어주다 가게까지 열어 재료 구입비용 부담 없고 만들기도 쉬워

솜을 넣어줄 것을 권한다. 솜을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 크기도 제각각이다. 신축성이 좋은 양말이라 한없이 늘어나고 한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솜을 넣은 후 흠질했던 실을 잡아당겨 솜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마무리해서 꿰맨다. 바닥에 놓아도 넘어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도록 손으로 모형을 잘 잡아준다. 이쪽이 눈사람 몸통의 바닥이 된다.

이제는 얼굴과 몸통을 구분할 수 있는 목을 만들 차

레다. 한가운데보다 살짝 위쪽으로 위치를 잡고 빙 둘러 선을 그려준다. 그대로 따라 바느질을 하면 된다. 역시 홈질을 해서 마지막에 살짝 잡아당겨 묶어주면 눈사람의 형태가 완성된다. 눈사람 양말인형은 다른 양말인형들에 비해 박음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쉬워보인다. 이때도 역시 손으로 모양을 잘 만져주도록 한다.

눈사람의 옷과 모자는 목이 긴 무늬양말을 이용한다. 먼저 발목 끝에서 시작해 발뒤꿈치 바로 윗부분에서 잘라준다. 대략 10cm 정도의 길이면 된다. 발목 부분이 몸통 위로 가게 옷을 입히고 잘라진 아랫부분은 말려 올라가게 한다. 끝까지 말려올라가지 않도록 아랫부분에 몸통과 같이 잡아 홈질을 해서 정리해준다. 옷을 만들고 남은 양말 앞쪽 쪽으로는 모자를 만든다. 양말을 뒤집어서 평평하게 편 다음 앞쪽 가운데를 기준으로 세모 모양이 되게 선을 그리고 박음질을 한다. 시집을 1cm 정도 남기고 자른 다음 다시 뒤집으면 고깔 모양이 되는데 이걸 눈사람의 머리위에 씌워준다. 아랫부분은 말아올라가게 해서 홈질로 고정시키면 된다.

마지막으로 눈과 코를 달아주는데 눈은 보통 단추를 많이 이용한다. 못입는 옷을 버릴때 단추를 남겨두면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코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스티로폼으로 만든 일명 '뽕뽕'을 달아준다. 눈과 코 모두 글루건으로 고정시켜주는데 중앙에 코를 먼저 붙여준다 다음 코를 기준으로 눈의 위치를 잡아 붙여준다. 색연필을 이용해 볼터치를 해줘도 되고 몸통 양옆으로 박음질을 해주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양증맞은 눈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다.

양말인형은 보들보들한 양말의 촉감 뿐만 아니라 풍실풍실한 솜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좋다. 딸랑이나 오투기, 모빌, 베개 등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세탁을 할 때는 손으로 가볍게 조물거린 다음 탈수만 가볍게 울코스로 돌려주면 된다. 건조된 후에는 대략 손으로 만져주면서 모양을 갖춰주도록 한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속이 빈 양말 대신 아이들과 함께 솜을 가득 채운 양말 인형을 만들어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해 주면 어떨까.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거짓말 폭탄' 광주서 터진다

'라이어 1탄' 22·23일, 28일~31일 5·18기념문화센터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일은 점점 꼬여만 가고.' 유쾌한 웃음 폭탄을 선사하는 '국민연극' '라이어 1탄'이 광주를 찾는다. 18일~23일, 28일~31일(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 오후 2시·7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연극 최초로 4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라이어 1'은 배꼽잡게 하는 대사와 숨 돌릴 틈 없는 스피디한 전개, 어디로 될지 모르는 상황 설정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작품이다. 특히 톨나버워 맞물리듯 돌아가는 배우들의 연기가 보는 맛을 더한다. 연극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이라면 안정맞춤인 작품이다. 택시 운전사 존은 두 집 살림 중이다. 워블턴과 스트리트햄에 메리와 바바라 두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존은 절묘하게 시간을 조절해가며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벼운 강도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의 삶은 꼬이기 시작하고 한번 시작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 일으키며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든다. 문화체육관광부 1+1 티켓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티켓 가격 3만5000원. 문의 1688-38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노래하는 시인' 신남영 첫 시집 '물 위의 현' 펴내

'노래하는 시인' 신남영이 첫 시집 '물 위의 현'(문학들)을 펴냈다.

이번 시집에는 궁극의 길을 찾는 시인의 지난한 여정을 형상화한 시들이 수록돼 있다. 시인은 이상향을 찾지만 늘 그 위에서 해멜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함에 직면한다.

"사막을 건너온 고행의 은자/ 그의 손에 들린 페르시아의 세타르/ 그는 날마다 강물을 보며 현을 켜다// 모래바람에 잠긴 노래/ 어느 날 세타르는 물 위에 뜨고/ 붉은 강물엔 소리의 무지개들/ 그의 빠는 캔디즈의 시타르가 된다" ('물 위의 현')

표제작 '물 위의 현'에서 보듯 궁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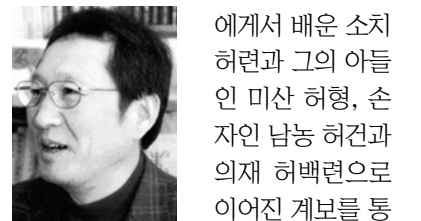
을 향한 삶은 아프고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시인은 유한하면서도 무력한 삶을 자연스런 노래로 변주한다. 한편 해남 출신인 시인은 2013년 계간 '문학들'로 등단했으며 송덕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다. 작곡과 노래, 연주에도 뛰어난 그는 직접 시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태호 교수 '한국미술사와 의재 허백련' 특별강연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전통회화 최후의 거장 의재 허백련' 전과 연계해 23일 오후 2~4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두번째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명지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이태호(사진)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이 교수는 '한국미술사와 의재 허백련'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공제 윤두서부터 시작된 남종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조선말기 추사 김정희



에게서 배운 소치 허련과 그의 아들인 미산 허형, 손자인 남봉 허건과 의재 허백련으로 이어진 계보를 통해서 호남화단이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인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강의한다. 문의 062-570-703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박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